

내수 활력 시동... 카드사, 소비 활성화 위해 팔 걷는다

9개 카드사 '외식 할인쿠폰' 동참
외식업소 이용횟수 안내 등 제공
8월 행사보다 외식쿠폰 기준 완화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행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카드업계도 여기에 동참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고 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9개 카드사는 소비쿠폰 행사 중 하나인 '외식 할인쿠폰' 지급 행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행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외식쿠폰', '농촌여행' 등의 소비

〈소비쿠폰 행사 현황〉

/각사 취합

	외식쿠폰	농촌할인
방식	주말(금요일 오후4시~일요일자정)중 2만원 이상 외식업체 4회 결제시 1만원 캐시백	지정된 농촌 관광지에서 현장 결제시 결제금액30%캐시백 (단,카드사별 최대3만원)
대상	개인회원 중 이벤트 응모자	각 카드사 개인 카드 이용자
기간	10월 30일~	
사용처	전 외식업소	지정 농촌 여행지 (휴양마을,관광농원 등)
참여 카드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BC·NH농협	NH농협·현대·신한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다.

소비쿠폰 행사는 지난 8월 처음 추진 했지만, 시행 이틀만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가 내려지면서 잠정 중단됐다.

외식쿠폰 지급 행사는 8월 행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할인권 지급 기준을 5회에서

3회로 낮췄으며, 잠정중단 이전 외식 실적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외식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별로 응모를 진행해야 한다. 주말(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사용분에 한해 2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1회로 인정하며, 네번째 외식 이후 1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카드사별로 이용실적을 조회

시스템과 추가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한카드 는 홈페이지와 앱 '신한페이판'을 통해 외식 실적 내역을 안내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조회페이지 내 응모이벤트를 통해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외식을 이용하고 난 뒤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추가 응모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침체 극복을 위해 행사를 마련한만큼 조금이나마 고객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삼성카드도 문자와 알림톡을 통해 외식업소 이용횟수를 안내하고 있다. 현대카드 역시 문자를 통해 외식업소 이용시 문자와 알림을 통해 잔여 횟수를 안내하면서, 주요 카드사들은 이번 주 내로 조회 시스템 구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외식쿠폰 행사와 더불어 진행되는 '농촌관광' 사업에는 NH농협, 현대, 신한카드가 참여한다. NH농협카드 는 오는 12월10일까지 NH농협카드 개인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농촌여행지에서 현장결제 시 이용액의 30%(최대 3만원)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금액의 3%(최대 1000원)를 NH포인트로 추가 제공해 최대 3만1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인 만큼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자 소비활인권 지원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고객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금융과 통신의 만남... 더주는 KB결합상품

더주는 리브엠 적금·LTE 요금제
통신비 기본요금 할인·보너스 혜택

KB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해 혜택을 주는 '더(The)주는 리브엠(Liiv M) 적금'과 '더(The)주는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더주는 리브엠 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며, 가입 기간은 1·2년제 2종류다. 신규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원 단위며,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기본 이율은 1년제 연 0.9%, 2년제 연 1.0%다. 우대금리는 적금 신규 월 다음달 말일까지 리브엠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 0.2%포인트, KB오픈뱅킹에 타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연 0.3%포인트가 적용돼 1년제는 최고 연 1.4%, 2년제는 최고 연 1.5%가 적용된



더(The) 주는 LTE요금제. /KB국민은행

다.

'더주는 LTE 요금제'의 기본 요금은 ▲1GB(음성 200분/문자 100건/데이터 1GB)는 월 1만원 ▲4GB(음성 200분/문자 100건/데이터 4GB)는 월 1만5000원 ▲15GB+(음성 100분/문자 100건/데이터 15GB+, 3Mbps 속도로 무제한)는 월 2만8500원 3종류로 구성돼 있다.

'더주는 리브엠 적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달까지 '더주는 LTE 요금제'를 개통한 고객이 적금 만기까지 요금제를 유지하면 '더(The)주는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제 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12개월 동안 월 5000원 보너스혜택과 만기축하금 2000원을 합해 총 6만2000원 ▲2년제 적금은 24개월 동안 월 8000원 보너스혜택과 만기축하금 4000원을 합해 총 19만6000원이 적금 만기해지시 원리금과 함께 지급된다.

이번 요금제 출시기점으로 12월 말까지 적금 가입과 요금제 개통을 완료한 고객은 1년간 통신비 기본요금을 월 2000원을 할인 받는 '신축년 통신비 0원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주는 리브엠 적금' 2년제와 '더주는 LTE 1GB'를 가입하면 1년 동안 실질 통신비가 0원 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손보協 차기회장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차기 회장 단독 후보 결정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8·사진)이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됐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시내 모처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지원 이사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주에 총회를 열어 정 이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용덕 회장의 공식 임기는 5일까지다.

정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6년 재무부를 시작으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감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을 거쳐 2014년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5년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임기중인



2017년에 거래소 이사장에 선임돼 이달 1일로 임기를 마쳤다.

앞서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정 이사장 등 5명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그 중 하나로 거론됐던 진용섭 전 금융감독원장(61·행시 28회)은 손보협 회장 후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이 곧바로 손보협회장으로 취임할 경우 거래소는 채남기 경영지원 본부장 겸 부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금융 유관기관장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차기 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시장에 선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유력한 차기 이사장으로 꼽고 있다. /송태화 기자 atvin@

신한카드, 렌탈 운영부담 최소화... '마이렌탈샵'

지난 2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신한카드는 중소 제조사와 유통사가 소비자에게 손쉽게 렌탈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y렌탈샵(마이렌탈샵)'을 런칭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이렌탈샵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중소기업이 별도의 렌탈 프로세스 구축 없이 렌탈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 렌탈 심사, 전자계약, 청구·입금 등 계정관리를 신한카드가 대행하는 상생협력 기반의 렌탈 플랫폼으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마이렌탈샵의 특징은 입점 고객사에 신한카드의 신용평가모형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렌탈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한카드가 구축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활용해 합리적인



신한카드는 '마이렌탈샵'을 론칭하고 제휴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휴조인식에는 (왼쪽부터) 민경원 코스트코 민경원 대표, 이요셉 퓨어웨이 대표, 현용철 북정제형(코지마) 부사장, 박충화 성우메디텍 대표, 안중선 신한카드 라이프·인포메이션 그룹장 부사장, 김명수 루컴즈전자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라이프사업본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한카드

렌탈 프로세스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그리고 고객이 렌탈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모든 결제수단을 수용한 개방형 구조를 갖췄다.

마이렌탈샵은 렌탈 사업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렌탈 비즈니스 시스템을 '샵(#)'으로 형상화함과 동시에 신한카드 및 고

객사의 '샵(shop)'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이름을 붙여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렌탈샵 런칭을 통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 맞춰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더불어 고객들의 렌탈 이용 경험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하나銀, 핀테크기업과 '급여선지급 서비스'

'엠마우스'페이워치 앱 이용

하나은행은 핀테크스타트업 엠마우스와 제휴해 프리랜서 및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급여선지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급여선지급 서비스는 엠마우스에서 개발한 근대 및 급여관리 시스템 '페이워치' 앱을 통해 제공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페이워치 앱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계약을 작성하며, GPS 정보를 기반으로 출퇴근을 인증하고 근로시간을 현금화가 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페이워치 앱 이용자는 적립한 근로 마일리지를 하나은행을 통해 연이율 6%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선지급금과 수수료를 정산한 실급여 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



해 급여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하고 하나은행 비대면계좌를 신규 개설한 손님께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금융소외자가 되기 쉬운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급여선지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손님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